태어나니 난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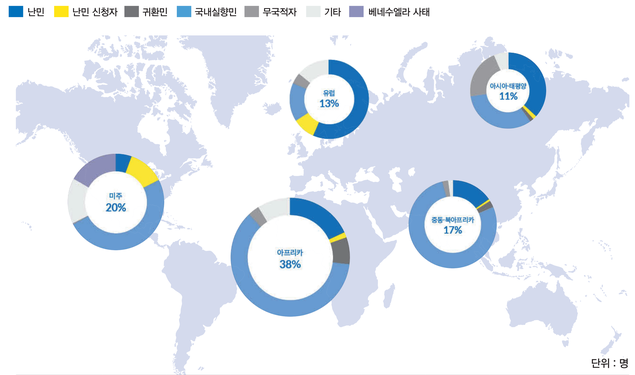
어느 날 갑자기 조국이나 고향, 거주지역을 떠나 일상이 파괴 된 난민이 해년마다 늘어나 역대 최대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난민이 된 주요 원인은 전쟁이나 강제 이주정책, 정치적 이념, 기후 환경의 변화로 생긴 이유 등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 심의를 신청한 사람은 총 7만 명(2021년 2월말 기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도이지만 세계적으론 8천만 명 이상입니다. 평화를품은집은 난민에 대한 개념과 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난민의 존재와 난민에 대한 지속적 관심에 귀 기울이기 위해 2021년 11월 난민 관련 책 전시회와 난민과의 만남, 난민 전를 개최합니다.

1. 숫자와 지도로 만나는 난민

전 세계적으로 8,240만 명(2021년 1월 기준)의 사람들이 강제로 집을 잃었습니다. 그 중 난민이 3천만 명, 실향민이 4천 8백만 명, 망명 신청자가 410만 명입니다. 또한 실향민의 절반이 어린이입니다.

유엔난민기구 보호 대상자

유엔난민기구 보호대상자(UNHCR Persons of Concern, POC)는 난민, 실향민, 귀환민, 무국적자 등을 비롯해 유엔난민기구가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위 : 명

	난민	난민 신청자	귀환민	국내 실향민	무국적자	기타	베네수엘라 사태	합계
아프리카	6,585,719	489,854	2,773,211	22,249,094	982,440	2,865,893		35,945,237
미주	759,691	2,112,469	10	8,571,378	4,423	3,052,456	3,856,327	18,356,358
아시아 태평양	4,016,705	203,480	157,660	3,544,916	2,285,074	685,100		9,755,055
유럽	6,778,420	1,125,616	399	1,985,782	534,438	1,657,095		12,016,349
중동·북아프리카	2,509,780	207,902	503,789	12,206,269	370,527	49,207		15,847,447
합계	20,650,315	4,139,321	3,435,069	48,557,439	4,176,902	8,309,751	3,856,327	91,920,446

*통계 및 수치는 각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미얀마 무국적 인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실향민, 무국적 수치는 중복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난민 통계 동향은 2020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난민 Refugee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서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돌아갈 수 없어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출처 : 미디어오늘)

난민신청자 Asylum seeker

국제적 보호를 구하는 개인으로 난민신청 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대상자 (Persons of concern)'에는 난민, 난민신청자, 국내실향민, 귀환민(Returnee), 무국적자(Stateless person)가 모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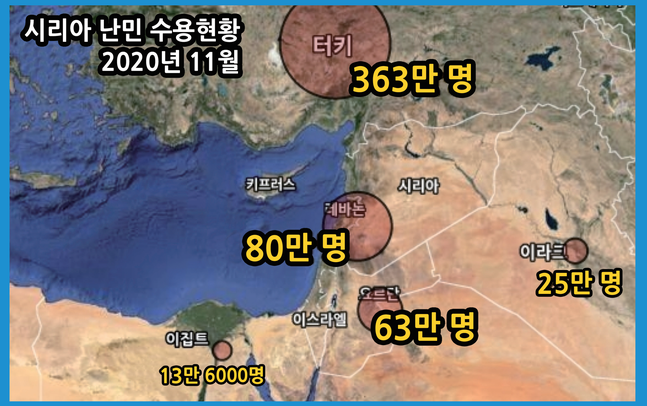
국내실향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

집이나 통상적인 거주지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않은 사람.

세계의 3대 난민

시리아 10년의 내전, 1,200만 명의 국내외 난민

2011년 3월, 30년 집권한 샤페즈 알아사드 대통령의 대를 이은 둘째 아들 바샤르 알아사드는 '아랍의 봄'의 영향을 받은 시리아 민주화 운동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다 한 시민을 사망케 한다. 이 사건으로 정권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시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반정부군과의 내전으로 이어진다. 정부군은 이슬람 시아파세력이, 반정부군은 수니파세력이 가세하고 미국주도의 연합군과 정부군을 돕는 러시아가 가세하면서 시리아 내전은 10년 동안 약 40만 명의 사망자와 총 1,200만 명(2021년 3월 기준 : 외국 난민 560만, 국내 난민670만 명–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인구 3천만 명 중 540만 명이 난민과 이주민인 베네수엘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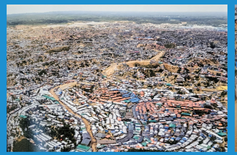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 사회적 불안의 이유로 자국을 탈출한 난민이 인구의 20%에 이릅니다.

70년 간의 난민, 팔레스타인인 500만 명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리하되 예루살렘을 국제 공동 통치 구역으로 지정하는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랍 국가들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1948년 유대인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하면서 총 네 차례의 전쟁이 발발했고, 이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개된 팔레스타인 난민은 2021년 6월 기준 500만 명에 이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서안지구,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난민촌 콕스바자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있는 쿠투팔롱 캠프는 80~100만 명을 수용한 세계 최대 난민캠프입니다. 미얀마의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이 라카인주에서 여러 차례 탄압을 피해 달아난 후 1990년대 초 비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 난민을 품은 집, 난민촌 텐트 4가지

캔버스 텐트

〈캔버스 텐트〉는 난민촌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쓰여온 거처입니다. 이 거처는 캔버스 재질의 천막으로 만들어져 습기가 없는 사막에서도 잘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캔버스 텐트는 한 번 설치하면 최소 1년 동안 한 난민 가족에게 든든한 집이 되어줍니다.

경량 텐트

〈경량 텐트〉는 '가벼운 긴급 텐트(Light-weight Emergency Tent, LWET)', '터널형 텐트'라고도 불립니다. 이 텐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기존 텐트들에 비해 가볍다는 것입니다. 경량 텐트는 방수 천과 기둥 그리고 텐트를 설치하는 데 쓰이는 망치를 모두 합해도 41.5kg밖에 되지 않아, 유엔난민기구가 많은 수의 텐트를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 텐트는 갑자기 지진이나 홍수가 일어난 긴급구호 상황에서 집을 잃은 많은 난민들에게 집이 되어줍니다.

자립형 텐트

〈자립형 텐트〉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들에게 문화적, 환경적으로 알맞은 보금자리를 보급하기 위해 4년간 연구한 끝에 만든 텐트로, 최근 부르키나 파소와 파키스탄 등지의 난민들을 대상으로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이 텐트의 특징은 기존의 텐트들보다 공간이 넓다는 것입니다. 자립형 텐트에는 5명의 가족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으며, 텐트 안쪽에 분리된 공간으로 가족 각자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난민 하우징 유닛

〈난민 하우징 유닛〉은 조립식 가구로 유명한 이케아(IKEA)와 유엔난민기구가 함께 개발한 조립식 거처입니다. 튼튼한 철제로 골격을 만들고 벽면과 지붕은 불에 잘 타지 않게 처리한 폴리올레핀 재질로 만들어 보다 안전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거처입니다.

3. 2,040일 동안의 난민생활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의 공격을 피해 고향을 떠나 차드호 인근에 정착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수많은 난민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삶을 다시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알리미 아발리Alimi Abali(왼쪽)가 차드호 인근 포르콜로움Forkoloum 난민 캠프에 마련한 가족의 집 앞에 앉아 있다.

"6년하고도 9개월이 지났어요." 야윈 모습의 52세 남성 알리미 아발리는 가족과 함께 포르콜로움 캠프에 정착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생각할 새도 없이 즉시 대답했다. 차드호 유역의 이 캠프에는 국내 난민 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알리미는 이곳에서 스스로 새 삶을 개척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고향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

기습적인 맹공격을 피해 자신의 세 부인과 열한 명의 자녀를 데리고 고향을 탈출한 알리미는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제를 즐기고 있었는데 보코하람이 공격을 퍼부었어요. 그들은 닥치는 대로 총질을 하며 아이들을 납치해 갔죠. 제 형제들도 몇 명 죽었고요. 목숨을 잃은 형제들의 부인과 조카들도 우리와 함께 도망쳐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날 밤 알리미의 친척 일곱 명이 살해당했고, 조카 열세 명이 납치되었다.

7년 전 알리미의 가족이 처음 포르콜로움에 왔을 때만 해도 캠프의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작았다. 그러나 현재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확장돼 있다. 알리미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나무 밑에서 잠을 자야 했죠."라고 설명했다.

알리미의 가족은 지난 수년간 이곳에서 살면서 고향에서 살던 집과 똑같은 모양의 집을 지었다. 덤불 속 나뭇가지와 호수 주변의 갈대를 모아 견고하게 지어 놓은 알리미 가족의 원형 오두막 여러 채가 대다수 최근 이주해온 이들의 임시 거처와 대조를 이룬다. 알리미는 자신의 집에 닭장과 식구들이 "매일 이동할 때 자전거처럼 사용하는" 말도 한 마리 있다며 농담을 했다.

이 캠프에서 알리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존경을 담아 알리미를 차드 아랍어로 추장을 의미하는 "보울라마Boulama"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이 마을의 지도자로서 알리미의 위상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알리미는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해결을 책임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UNHCR은 난민 캠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고향을 잃고 떠나온 난민에게 자립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여기에는 사업 시작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거나 사업 운영, 지역 공동체와의 평화로운 공존, 성차별 폭력 등의 문제에 관한 교육이 포함돼 있다.

은은한 광채가 도는 분홍색 베일을 걸친 알리미의 아내 야카 무사Yaka Moussa가 가족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식료품점을 그럭저럭 운영해온 지도 2년 가까이 되어 간다. 그녀는 땅콩, 기름, 음료수, 세제 등의 기본 물품을 가리키며 "UNHCR에서 받은 자금으로 상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되팔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 작은 식료품점은 가족의 생계 수단이다. 알리미는 "이 가게 덕택에 우리 가족이 먹고사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내의 품에 안긴 아기를 가리키며 "한번은 우리 애가 아파서 3일 동안 통원 치료를 해야 했어요. 그때 이 가게 덕에 병원비를 낼 수 있었죠."라고 설명했다.

호수 인근 지역 거주자의 절반인 45만 명이 난민이다. 대부분이 국내 다른 지역에서 이동해 온 국내 난민으로 그 수가 40만 명을 넘는다. 또 다른 난민 3만 명은 과거 차드 난민으로 인접 국가에서 살다가 주로 증가하는 지하디스트의 위협을 피해 돌아온 자들이다. 나머지 1만 6,000여 명의 난민은 나이지리아와 니제르 출신이다. 이 근방에는 총 229개의 국내 및 해외 난민 캠프가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차드 국내에서 지하디스트가 민간인을 상대로 자행한 공격의 규모와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현실적인 위협은 여전하다.

©UNHCR 노에미 르후엘뢰르 Noémie Lehouelleur

4. 난민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 (민주언론시민연합)

1. 난민을 받아들이면 범죄가 늘어난다?
2. 난민 범죄 때문에 유럽 사회가 혼란하다?
3. 국민혈세를 왜 난민에게 쓰나, 사회적 약자부터 챙겨라?
4. 취업하려고 오는 가짜난민이다?

기사 전문보기 :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난민에 대한 편견 넘쳐나는 유튜브

5. 한국에도 난민이 있어요?

2021년 2월 말 현재(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난민 신청자 71,449명(종교 16,955명, 정치적 의견 12,918명, 특정사회구성원 7,274명, 인종 3,862명, 국적 388명, 기타 30,052명)
※ 난민 인정자 1,098명 ※ 인도적 체류 2,378명